

KIA '람사르 데이' 행사

습지보존 중요성 홍보

작성자 **박간재 기자** - 등록 : 2018년 7월 17일 오후 4:48 / 수정 : 2018년 11월 13일 오후 2:25



KIA타이거즈가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전에서 '람사르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람사르 데이'는 KIA 구단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함께 습지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협약'과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이날 관객들에게 기념 에코백과 부채 등을 나눠주고 습지 보전과 국제협력, 2018년 세계습지의 날 주제인 '습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 습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시구는 습지 연구에 공헌한 것을 인정 받아 국내 최초로 람사르상을 수상한 부산대 주기재 교수가 하고 우리나라 겨울 철새인 독수리 보호활동을 20년 넘게 펼치고 있는 김덕성 전 교사가 시타자로 나섰다.

한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2008년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를 계기로 설립된 전 세계 4개 람사르지역센터 중 한 곳으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안에 자리잡고 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